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8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APM 터미널, 브라질 산토스항 컨테이너터미널 투자	2
□ ICTSI, 라틴아메리카 투자확장 공표 및 상반기 실적 발표	3
□ 일본 해운물류기업 3社, 베트남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합작투자	4
□ 2020 아시아 물류구매 포럼 개최	5

□ APM 터미널, 브라질 산토스항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 APM Terminal(이하 APMT)은 금년 8월 브라질 산토스항에 현재 건설 중인 컨테이너터미널 (Brasil Terminal Portuario-BTP)의 운영회사인 Terminal Investment Limited's (이하 TIL)¹⁾의 지분 50%를 확보하기로 합의함
 - 시설 규모는 Super Post Panamax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수심 15m의 3개 선석이며, 연간 처리 능력은 220만 TEU임
 - TIL은 터미널을 2012년에 시범 개장하고, 2013년에 완전 개장할 예정임
- 이번 합의는 두 회사 간의 첫 공동 프로젝트이며, 양사가 신규 터미널을 공동 관리할 예정
 - 양사는 이미 브라질 물류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TIL은 나베간테스항(Navegantes)에서, APMT은 포첸항(Pocem) 및 이타자이항(Itajai)에서 터미널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 APM의 CEO인 Kim Fejfer는 이번 합의를 통해 고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브라질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TIL의 CEO인 Vikram Sharma 역시 이번 합의를 통해 산토스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브라질 선주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브라질 GDP의 5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파울루(Sao Paulo)와 그 배후부지의 현관에 위치하고 있는 산토스항은 브라질 최대의 항만으로서 국가 전체 무역량의 25% 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APMT는 추정하고 있음
 - 또한 향후 환적화물의 추가 유치를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자료 : CI-Online, 2010.8.18.

남경오 연구원(☎ 02-2105-2929, reinhard79@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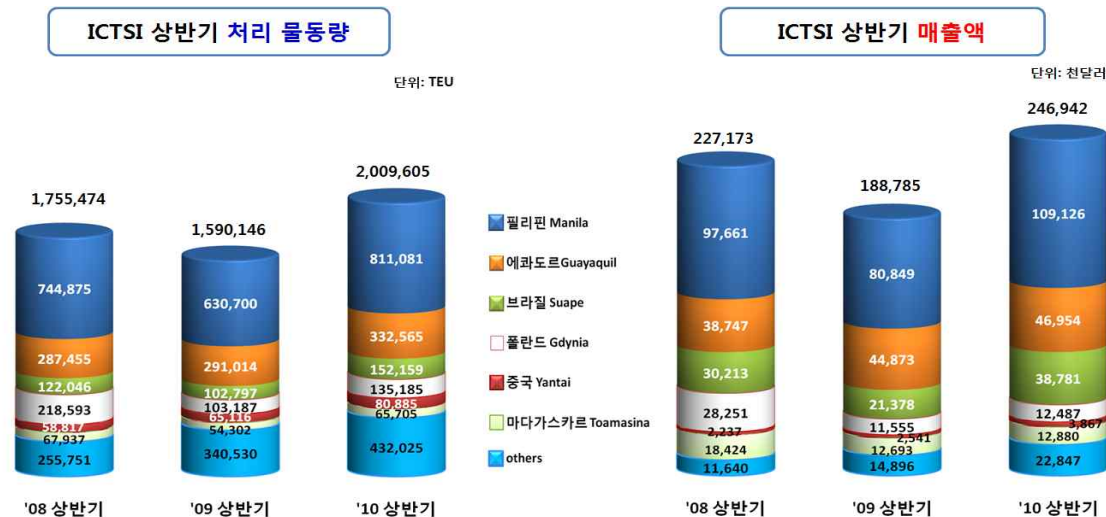
1) TIL은 15개국에서 항만 터미널을 운영하는 GTO로서, 산토스항의 BTP의 항만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TIL은 MSC사의 물량을 자사 터미널을 이용하도록 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

□ ICTSI, 라틴아메리카 투자확장 공표 및 상반기 실적 발표

-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는 향후 2~3년간 라틴아메리카에 6억 달러 이상 투자를 계획 중
 - ICTSI 는 향후 2~3년 동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에 6억에서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계획을 공식 확인하였음
 - 아직 세부 계획을 공시하고 있지 않으나, 8월 18일 아르헨티나의 La Plata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지분 10%를 추가하여 85%로 확대하였음
 - ICTSI는 2007년에 콜롬비아의 Buenaventura²⁾, 2008년에 아르헨티나의 La Plata, 2009년에 멕시코의 Manzanillo 항만운영권을 획득하였으며 모두 개발단계임
- 2010년 6월 현재 11개국 16개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ICTSI의 2010년도 상반기 실적은 다음과 같음 (2010.8.5. 발표)

지역	국가(항만)
아시아	필리핀(Manila, Zambales, Bantagas, Davao, General Santos, Misamis Orienta), 일본(Okinawa), 인도네시아(Makassar), 중국(Yantai), 브루나이(Muara)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폴란드(Gdynia), 마다가스카르(Toamasina), 시리아(Tartous), 그루지아(Batumi)
아메리카	브라질(Suape), 에콰도르(Guayaquil)

-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2백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였고, 매출액은 30.8% 증가한 2억 4천 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자료 : <http://www.businessweek.com>, 2010.8.11. / <http://www.philstar.com>, 2010.8.20. /
<http://www.ictsi.com>, 2010.8.5. / <http://www.pse.com.ph>, 2010.8.19.

송주미 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2)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1호 참조 : 필리핀 ICTSI사, 아르헨티나 La Plata항 「컨」터미널 개발 착수

□ 일본 해운물류기업 3社, 베트남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합작투자

○ 합작투자 개요

- 일본의 MOL, NYK, ITOCHU상사가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Vinalines)과 합작투자를 통해 베트남 하이퐁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추진
- 일본기업(MOL, NYK, ITOCHU)과 베트남 Vinalines 지분율은 각각 49%, 51%임

○ 터미널 개요

총 비용	350만 US\$
총 처리능력	85만TEU (베트남 북부 컨테이너 항만 처리능력의 절반 수준)
수심	14m
개발 완료 시점	2015년

○ 베트남 주요항만 물동량 현황

- 베트남 주요항만의 물동량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연평균 약 15.3% 증가
- 하이퐁항은 2009년 816천TEU로 전년 대비 약 3.3% 증가

<베트남 주요 컨테이너항 물동량 현황>

(단위 : 천 TEU)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Da Nang	-	32	33	36	53	61	-
Hai Phong	386	458	424	464	684	790	816
Ho Chi Minh	1,471	1,674	1,911	2,328	3,172	3,432	3,563
Nha Trang	5	4	9	5	5	4	-
Qui Nhon	-	39	42	54	62	72	-
합계	1,862	2,207	2,419	2,887	3,976	4,359	4,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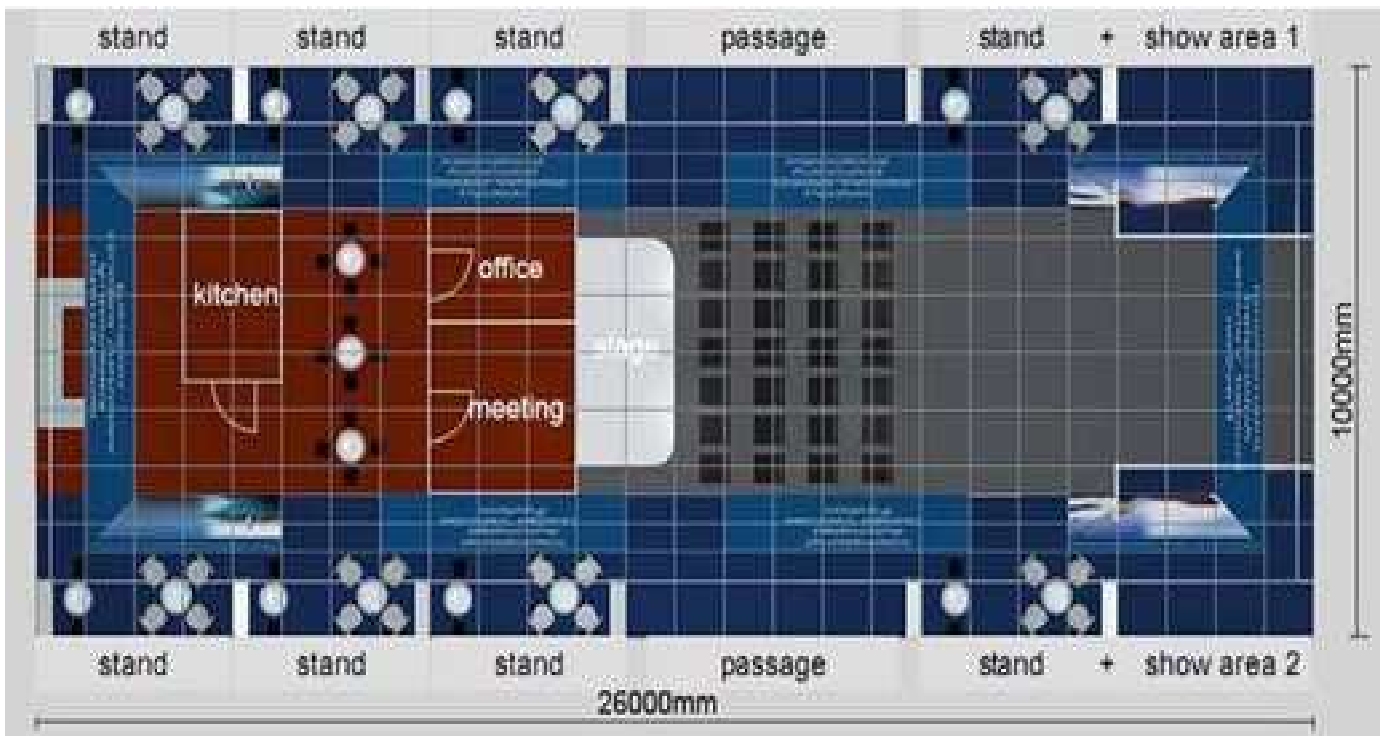
자료 : CI-Online, 2010.8.20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

□ 2020 아시아 물류구매 포럼 개최

- '2020 아시아 물류구매 포럼', 중국 상하이에서 10월 27일부터 개최
 - 아시아국제물류기술 및 운송시스템 전시회(CeMAT ASIA)는 아시아에서 물류장비 기술 영역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전시회로서 중국 물류운송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0년에 처음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0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국내외의 500여개 기업과 6,0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재로운반, 재로운반 통합시스템, 창고기술, 물류, 물류보관 기술 및 작업장비, 재료유통관리, 물류 서비스, 운송, 물류 등 아시아 및 중국의 최신 물류기술과 수요 대한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음
 - 특히 물류시스템의 자동인식시스템 적용기술, 무인자동차량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만장비 등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접할 수 있음

〈2010 아시아 물류구매 포럼에서 소개될 AGV 적용 물류시스템 가상도〉



자료 : 中國大物流網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